

사설

국회 정각회의 숙제

이번 15대 국회는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20세기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태의 연한 정치형태의 청산과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번 총선으로 1백38명의 정치신인들이 원내에 진출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큰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징표였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할일이 많고 기대가 큰 전환기의 15대 국회에 40여명의 불자의원들이 정각회원으로 의정생활과 신생활을 펼치게 된 것이다. 국회의 감시자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이 나라 최고정치지도자들의 불교신행단체인 '정각회'에 우리 불자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름만 가진 정각회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던 불자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바램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정각회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불자의원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모범적인 의정생활에 임해야 하겠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무엇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정치적 소신과 국민에 대한 공약에 따라 법을 만드는 일부터 모든 정치활동을 펴나가기야 한다.

부처님은 불교적 청렴과 정직의 덕목을 바탕으로 숭선수범 지배질서의 윤리를 강조하셨다. <전륜성왕사자후경>에 나오는 전륜성왕의 정치지도자상을 모범으로 삼아도 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각회의 조직을 좀더 체계화하고 활동반경을 넓혀야 한다. 젊은 세대 불자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몇몇 명망가들의 열광대기식 조직은 민주화·세계화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는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화두의 실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울러 통일·환경·문화·민생·여성·법제 등 각 분야별로 소규모 분과모임을 만들어 연구와 활동을 내실화해 나아가야 한다.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소그룹 활동은 절실히 필요하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각계 각층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각회 불자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그 파급효과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불교계의 권익옹호와 우리 민중의 친밀한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계승·발전에 앞장섬으로써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그동안 각종 불교관계 약법으로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탄압과 규제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각종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특정종교를 지원하는등 편향적 종교정책으로 불교가 무시당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10·27법안, 국정·경인정교과서에 나타난 종교편향정책, 각종 해불사건, 잘못된 문화재·공원정책, 각종 불교문화유산의 파괴, 대통령국방부예배사건 등등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례가 공표되었는가.

넷째, 다른 불교신행단체들과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교수·법조불자들과 함께 불교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대학생불자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당부한다. 정각회가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의 산소가 되고 민주통일정포를 앞당기는 기수가 되길 기원한다.

열린마당

사리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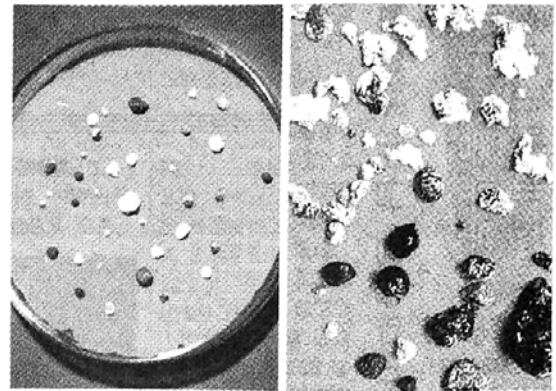
부처님공덕 기리는 대상...기복조장 삼가야

유진스님 <동도사 포교국장>

사리는 단순히 사리일 뿐이다. 신비화 한다거나 초자연적인 무엇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여기하기 어렵지만 일부에서는 '상실전시' 하듯이 사리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가 자칫 사리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치게 기복을 조장하듯이 한다면 문제이다. 부처님 열반 후 인도의 여러 왕들이 사리를 모셔 탑을 세운 뜻은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따르고 그 공덕을 기리고자 했을 뿐이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물론 기복신앙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기복을 사회적 욕망으로 대체하는 시각이 문제이다. 기복은 모든 종교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

지난 11일 부처님이 서울 복판에 출현하셨다. 김은사와 나원리 석탑에 봉안되었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1천3백년만에 나들이를 한 것이다. 부처님열반 이후 사리는 신앙의 상징으로서 신심을 불태워 왔다. 무엇이 사리신앙을 2천여년 이어오게 했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입적한 회광 일각스님(사진 왼쪽)과 일봉 서경보스님의 다비에서 오색 영롱한 사리를 수습했다.

사리는 범어(梵語)의 'Sarira'를 소리나는 대로 한자로 적은 것으로, 불교에서는 석가의 신골(身骨)을 뜻한다. 사리의 유래는 석가가 기원전 480년(일설에는 386년)에 인도 구시나기라의 사라쌍수 밑에서 80평생을 마치고 열반하자 제자들이 인도의 강법(葬法)에 따라 다비(火葬)를 하였는데 이때 나온 유골을 사리라(舍利)를 명명하여 봉안하기 위

사리신앙의 유래

사리 8분 불탑신앙서 비롯 신라 자장율사가 진신사리 국내 봉안

하여 세워진 축조물이 탑과 다비를 하고, 사리를 수습하여 사리탑을 세우는 것이 정형되었다. 또 사리탑을 건립하거나 사리에 공양하면 무량한 복덕이 있다고 관장하여 사리신앙이 보편화되었다. 맹목적인 숭배와 신앙심을 경계해 운허스님과 전강스님은 다비후 사리를 수습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하여 분석화살에 의해 방사성원소인 프포르락티늄(Pa)과 핵융합원소로 쓰이는 리튬(Li) 등 12종이 검출되면서 '기가 농축된 것으로 수행자에 게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호기심 버리고 남기신 수행·가르침을 봐야

정승석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사리는 성철스님의 열반으로 각별히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불교를 잘 모르면 사람들도 성철스님의 다비에 관심이 높았던 것은 다비 후에 추러낼 사리(舍利)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었다. 스님의 무궁한 정진과 도력만큼이 수많은 영롱한 사리가 나와 세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지만 그것은 불

교의 진리와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접근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골의 결정체로서의 사리가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원래 부처님 육신의 애착에서 비롯된다. 즉 다비후의 유골이 바로 부처님 생존시의 육신과 같은 것이며 그 유골속의 영롱한 결정체는 진리의 빛인 부처님 그 자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스님의 다비뒤에 나오

는 낱알의 결정체인 쇠신사리만 사리로 인정하지만 한 스님이 입적하기전 모든 바른 가르침과 위덕이 사리로써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쇠신사리 자체에만 천착하여 신앙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의 지향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며 사리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하는 한낱 속인의 호기심과 다를 바 없게 될지 모른다.

쇄신사리로 수행승 법력 평가는 어불성설

강래철 <춘천불교청년회장>

불자들은 대부분 사리에 대해 유별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스님이 열반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누구나 사리는 얼마나 나올까하는 결과물에 모든 이목을 집중한다. 이렇게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사리는 언젠가 수행승의 법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고 신비의 대상으로 불자들의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심지어는 불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다비후의 사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높다는 것에서도 사리에 대한 관심의 척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큰스님이 다, 큰스님이 아니더라는 것을 많은 사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불자들의 사리관은 긍정적일 수 믿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

냐하면 사리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면 부처님의 정법이 비법으로 전락되고 신행의 방법까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전통적 장례법인 다비에 의해 수습된 사리가 불교의 발전과 신행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리의 수만을 놓고 큰스님이라고 판단하려는 것은 올바른 불자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현대만평



인파가 무섭지도...

목어

일부 기독교인들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우리나라 화폐가 불교 편향적이라며 화폐도안 변경을 요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1만원 화폐의 용과 연꽃, '기'자 문양, 5천원권의 봉황, 5백원짜리 동전의 학, 10원짜리 동전의 다보탑도 불교상징물이라는 것. 이들 기독교인들은 지난 2월에도 '현재 우리나라 화폐 도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는 그 민족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상징의 숲'이 있다"(한국문화상징사전)의 머리말이다. 이 사진

1600년과 100년의 차이

항목속에는 기독교인들이 불교상징물이라고 주장하는 '용' '연꽃' '봉황' '학' '탑'도 들어있다. 이 사진들이에 의하면 상상의 동물 용은 호국·호법신이다. 따라서 군왕과 자연스럽게 결합해 있음을 나타내었다. 용안, 용상, 곤룡포 등이 그것이다. 신이한 영물은 길상·행운·입신출세를 상징한다. 봉황역시 상서로운 상상의 새다. 용과 함께 황후와 황제를 상징하며 현대에는 대통령의 문장

으로 사용한다. 태평성세 경사 평화 영생불사 등을 나타내는 이 새는 성모마리아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도 상징한다. 이쯤되면 기독교인들은 돈만봐도 미안해질 것 같다. 신성 기쁨을 뜻하는 학은 오히

려 유골 또는 도교적이다. 연꽃이 불교상징 꽃이고 탑이 불교건축의 하나이지만 이미 거기에 민족의 숭결과 심성이 스며있다. 이제와서 수천년 이어져 온 문화의 양극을 어찌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던 말인가. 묻고싶다. 기독교인들은 한국인이 아니냐고. 행여 1천6백년 한국 불교역사와 1백년 한국 기독교사의 차이에 느끼는 열등의식이라면 이제라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러한 일부 기독교인들을 설득, 그렇지않아도 이수선한 우리 사회에 또하나의 파문이 일지 않도록 미리 선처해 주길 당부한다.

새싹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말을 함부로 하면. 사상은 태어날 때에 그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른다. 어리석은 자는 짙은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찌고 먹다. (숫타니파타)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봉 경보 대종사께서 지난 6월 25일(음5·10)오전 11시 40분 세계불교법왕청 법왕실에서 입적 하시고 7월 1일(음5·16) 동국대학교 대운동장과 경남 의령 일봉사에서 세계불교 법왕청장으로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수행정진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참례하여 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월하 대종사, 찬다난다 대승왕, 전 대한불교조계종정 서암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석주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큰스님,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 큰스님, 각 종단원로 대덕스님, 세계각국의 조문사절과 정계·학계·교계·재계 등 사회 각계 대표와 사부대중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나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오니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舍利親見法會 및 四十九齋安내

지난 7월 1일 전 세계불교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봉 서경보 큰스님의 다비식을 봉행하였고, 일봉 큰스님은 우리에게 영롱한 법신사리 100과를 남기셨습니다. 큰스님의 법신사리를 사부대중이 참배하도록 오는 8월 12일(음6·28) 월요일 오전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법왕청(일봉선원) 대법당에서 49재를 봉행하며 친견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참배있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의 49재는 오는 8월 12일(음6·28) 월요일 오전 10시 법왕청(일봉선원)에서 봉행합니다.

불기 2540년(1996). 7. 5.

一鵬 京保 大宗師 世界佛教法王廳葬 葬儀委員會

共同法王 찬다난다(스리랑카 僧王)
葬儀委員長 서암 大宗師
門徒代表 정관 습장